

## 문장 부호와 각주 배치 및 문단 잡기 등에 대한 소견

고영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 이극로박사기념사업회 회장

### 1. 들어가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문학 분야는 각주를 달 때, “앞 책, 전게서(前揭書), 전게 논문(前揭論文), Op. cit, 위 책, 상게서(上揭書), 상게 논문(上揭論文, Ibid)” 등의 전통적인 각주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민족 어학(국어학) 내지 영어학이나 언어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내각주, 내용주, 참고 논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를 택하면 참고 논저가 생략될 수 있거나 불인다고 해도 그 내용이 부실해지기 쉽고 후자를 택하면 내각주의 정보가 참고 논저에서 빠지기 쉽다. 실제로 국내에서 나오는 논문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본문의 내각주에는 ‘홍길동 (2005)<sup>1)</sup>’으로 나오는데 참고 논저에는 빠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글은 필자가 1999년 3월부터 2008

---

1) 《새국어생활》에서는 괄호 앞 단어와 괄호를 붙여 쓰지만 이 글에서는 괄호 앞 단어와 괄호를 띄어 쓰는 국제 규정을 설명하는 저자 의도에 따라 띄어 썼음을 밝혀 둡니다(편집자).

년 3월까지 어학전문 국제학술지 《형태론》을 편집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쉼표,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와 문단 잡기, 자료의 설명 및 해석 방식 등의 문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장 부호와 문단 잡기의 표준안 제정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쉼표, 마침표’는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반점, 온점’으로 불러야 할 것이나 알기 쉬운 ‘쉼표, 마침표’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마침표와 관련 각주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마침표는 문장의 종결 표지다. 사실 우리말은 평서형 어미와 같이 문장 종결의 표지가 언어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 파악에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실제로 전통 시대에는 《동몽선습(童蒙先習)》 등 한문 교재를 보면 문장이 끝날 때마다 “종결토”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어디서 종결되는가 하는 것을 쉽게 분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결 표지 가운데서 평서형 어미 ‘-다’는 ‘가다 말고’ (‘가다가 말고’의 준말)의 ‘가다’와 같이 연결 어미와 형식이 같기 때문에 마침표를 두는 것이 옳다. 반말의 종결 어미 ‘-어, -지’와 같은 것은 진술, 의문, 명령 등의 문체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조적 연결 어미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마침표나 물음표를 붙이지 않으면 의미 파악에 지장을 준다.

이곳에서는 일단은 현행 민족어 규범과 같이 문장 부호로서의 마침표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문서 작성에서 대두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내각주를 종결 평서형 ‘-다’ 다음에 달 때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내각주 방식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내각주 앞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방식을 처음으로 민족어의 어학 논문에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기문 교수의 《국어음운사연구(國語音韻史研究)》(1972)에서 그 예를 가져온다.

- (1)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는 古代語의 母音體系가 위에서 우리가 再構한 前期 中世語의 그것과 대체로 一致함을 보여 주었다.  
(河野六郎 1968) 東音의 ‘ㄱ’와 ‘ㄴ’가 각각 中國音의 … 反映하였음은 … 의심할 수 없게 한다.(이기문의 위의 책, 116쪽)

(1)에서 진하게 표시한 ‘(河野六郎 1968)’은 뒤의 〈參考 論著 目錄〉에 《朝鮮漢字音研究》로 나와 있다. 이기문 교수는 한 문장으로 된 그 앞의 고노(河野六郎) 교수의 견해가 표백된 종결 평서형 ‘주었다’ 다음에 마침표를 치고 괄호 안에 내각주 ‘河野六郎 1968’을 배치하였다. 이를 편의상 〈방식 1〉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마침표의 배치는 위의 책에 일관하여 있다.

그러나 19년 뒤에 낸 같은 저자의 《국어음운사연구(國語音韻史研究)》(1991)에서는 마침표를 앞의 (1)과는 반대의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 (2) boro는 몽고어 音韻史에서 bora에 소급하며 中世蒙古語에서는 이 兩形이 共存하였다(Poppe 1955). (이기문의 위의 책, 141쪽)

(2)에 나오는 진한 표시의 ‘(Poppe 1955)’는 뒤의 〈參考 論著 目錄〉을 보면 Poppe 교수의 *Introduction to the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를 가리킨다. (1)과는 달리 한 문장으로 된 Poppe의 견해에 바로 이어서 Poppe의 책에 대한 내각주를 달고 그 끝에 마침표를 붙였다. 이를 편의상 〈방식 2〉라 부르기로 한다.

〈방식 1〉과 같은 배치가 당시의 국제적 관례를 따른 것 같으나 현재의 필자로서는 이를 구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방식 2〉와 같은 배치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크게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기문 교수가 〈방식 1〉을 버리고 〈방식 2〉를 택하게 된 것은 당시의 국제적 관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식 1〉은 다음과 같이 어떤 정보가 두 문장 이상에 걸치는 내용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3) 이 게시판은 편집자와 구독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목적으로 마련한 마당의 역할을 합니다. 편집자는 편집이나 이와 관련된 뒷이야기를 이 마당을 통하여 전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은 《형태론》의 편집체재, 내용, 구독 등에 걸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집대표, 편집주간, 편집위원의 전자 우편이나 서신 등 기타의 방식으로 소견을 기탄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뒷이야기는 이곳 마당은 물론, 홈페이지에도 실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실제로 신문 기사에서는 〈방식 1〉을 택하고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 (4) 얼마 전 전문대를 대학교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한 개혁’이라고 한 독자 기고문을 읽었다. (5일 자 A29면)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

육법 개정법률에서 ... (조선일보 1911. 5. 18., A33)

(5)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LH 공사의 입지 문제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갈등하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줄이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A 4·5면**

(4)는 한 문장으로 된 마침표 다음에 ‘(5일자 A29면)’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1)과 똑같은 마침표의 배치이고 (5)도 한 문장 다음에 마침표를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3)과 같으나 줄을 바꾸되 진한 체로 ‘**관련기사 A 4·5면**’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신문에서는 한 문장이든 그 이상이든 구별하지 않고 종결 평서형 다음에 마침표를 배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에도 (5)와 같은 방식을 택한다. 이럴 때 흔히 ‘홍길동 기자’라고 필자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는 직위나 직책은 뒤에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격이 되므로 ‘문화부 기자 홍길동’과 같이 자신의 소속 부서와 직함을 성명 앞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논문의 경우는 (3)과 같은 방식이 그리 흔하지 않다. (3)의 끝에 나오는 ‘편집자’와 같이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성립된 정보에 걸릴 때에는 마침표 다음에 필자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어학 논문에서는 보통 (2)와 같이 인용 대상의 정보가 한 문장에 담기기 때문에 내각주 다음에 마침표를 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제안한 〈방식 2〉를 택할 때 외각주 번호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다음 (6)을 보기로 한다.

(6) 정렬모의 《신편고등국어문법》(1946)은 해방 후 짧은 기간 안에 집필된 책치고는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주시경의 《국어문법》, 김두봉의 《김씨 조선말본》, 박승빈의 《朝鮮語學》, 최현배의 《우리말본》다음으로 고전적 가치를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5</sup> ‘두루빳’은 우리말의 격 체계 수립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지식 체계임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줄저, 《민족 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2010)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위의 (6)의 “평가할 수 있다.<sup>5</sup> ‘두루빳’ …”과 같이 마침표 다음에 외각주 번호를 붙인다. 이렇게 마침표를 배치하면 보기는 좋으나 ‘두루빳’으로 시작하는 뒤 문장과 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 실험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시각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이런 시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마침표 앞에 각주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다.

(6') …《우리말본》다음으로 고전적 가치를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5</sup>. ‘두루빳’은 우리말의 격체계 수립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인식 체계임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보기는 안 좋은 면이 있으나 ‘두루빳’으로 시작하는 뒤 문장과, 앞 문장과의 경계가 분명하여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문장 부호라는 것이 독해를 돕는 장치이고 때로는 언어 기호에 뒤지지 않는 기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배치 문제에 둔감할 수 없다. 이 방식은 현재 일본 어학계에서 선호되는 각주 배치법이다. 대표적으로 마쓰모토(松本克己) 교수의 《世界言語のなの日本語》(三省堂, 2007)를 보면 그런 배

치법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 素地っていると言えよう<sup>22</sup>.’ (위의 책, 151쪽). 이러한 각주 배치법은 다음에 나오는 쉼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마침표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언급하기로 한다. 안긴 문장의 종결 평서형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 많은데 그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종결 평서형 어미 뒤에는 마침표를 찍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안긴문장에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7) 철수는 “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라고 어머님께 말씀 드렸다.

“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는 그 자체로는 자립적인 문장이나 큰 문장 속에 안겨 있다. 이런 경우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문장 부호는 단순한 수사적인 장식이 아니라 구어의 억양에 대응되는 어엿한 언어 실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마침표를 빼어야 한다.

(7') 철수는 “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라고 어머님께 말씀 드렸다.

### 3. 쉼표와 관련 각주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현재 남한의 각종 문장에서는 쉼표를 남용하고 있다. 일찍이 리델(F. Ridel) 신부의 《우리말 문법》(1981), 발머(Th. Ballmer) 박사의 《구두점》(1975), 장소원 교수의 《구두점 문법 서설》(1984)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우리말에는 쉼표에 대응하는 연결 어미가 있기 때문에 연결 어미 뒤에 쉼표를 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이 점을 인식하여서인지 문장 부호 규정에서 연결 어미 뒤에 쉼표를 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문장 부호 세칙》(2002)에 와서야 연결 어미 뒤의 쉼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연결 어미 뒤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거나 괄호에 의한 보충 설명이 있을 때에는 쉼표를 붙이는 것이 독해에 도움이 된다. 쉼표를 치지 않으면 다음 절과의 연결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결 어미 다음에 쉼표를 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1) 가. 이 말 (읽어라. 필자)은 이규영의 …《읽어라 가르침》에 처음 나온다고 보고되어 있으나,<sup>2</sup> 이 말 역시 1911년 경에 주시경에 의해 사용된 것이다. (줄저,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107쪽)

나. 처음 ‘한글모’가 창립되었을 때는 회장과 의사원 다섯 명만 선출하고 나머지 부서는 이들이 분담하게 하였었는데, (앞에 나옴) 1916년 임시총회 때 부서 책임자를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같은 책, 122쪽).

(1)은 진하게 표시한 바와 같이, 연결 어미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쉼표를 안 붙이는 것이 옳다. 그러나 (1가)와 같이 각주 번호가 붙어 있거나 (1나)와 같이 ‘하였었는데’ 다음에 ‘前述’을 의미하는 ‘앞에 나옴’이 올 때에는 쉼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오는 문장과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독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쉼표를 어



디에 배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한다. 이 역시 마침표와 같이 뒤 문장과 의 경계를 고려하여 각주 번호와 ‘앞에 나옴’ 다음에 붙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는 앞의 (1가, 나)와 같이, 쉼표 다음에 각주 번호나 ‘(앞에 나옴)’을 배치하고 있다. 필자가 지향하는 배치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가. 이 말 (읽어라-필자)은 이규영의 …《읽어라 가르침》에 처음 나온다고 보고되어 **있으나**<sup>2</sup>, 이 말 역시 1911년 경에 주시경에 의해 사용된 것이다. (같은 책, 제이앤씨, 107쪽)
- 나. 처음 ‘한글모’가 창립되었을 때는 회장과 의사원 다섯 명만 선출하고 나머지 부서는 이들이 분담하게 **하였었는데(앞에 나옴)**, 1916년 임시총회 때 부서 책임자를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줄저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122쪽).

(1)과 같은 경우도 앞서 든 마쓰모도의 방식이 참고가 된다. 일본어의 경우 연용형 (連用形) 다음에 각주 번호를 붙일 때에는 각주 번호를 붙인 다음에 쉼표를 붙인다. 예를 들면 “相關度の高いものとされるが<sup>14</sup>, この「一般原則」は … ” (앞의 책, 142쪽)와 같다.

부사성 의존 명사나 그에 준하는 명사가 절을 이끌고 있을 때에는 쉼표를 쳐야 한다.

- (2) 가. 김두봉은 … (6가)에서 소리글씨를 다시 ‘날글씨’와 ‘줄글씨’로 **나눈 다음**, 우리 문자의 고쳐야 할 점을 거론하였다 (줄저,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326쪽).
- 나. 주시경은 작고하기까지 적어도 **강습원에 관한 한**, 거의 모든

기초를 다 닦아 두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책, 115쪽).

다. 박승빈이 이끄는 조선어학연구회가 … 조선어학회에 대하여 4차 도전장을 내고 조선어학회가 표준화를 마무리 짓기 위한 기초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東亞日報는 1932년 11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조선어 철자법 토론회를 열었다 (같은 책, 406쪽).

라. 먼저 계봉우는 고려어 문전회의가 열린 뒤, 다음 8개 주제에 걸쳐 오창환의 견해를 비판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책, 452쪽).

(2가, 라)는 연결형 ‘나누고 (서), 열리고 (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성이 관형사형과 명사의 복합 구성이기 때문에 쉽표를 치지 않으면 후행절과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2나, 다)는 의존 명사의 성격이 강한 명사인 데 그대로 두어서는 역시 후행절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2나)가 그러하다. 특히 ‘한 사람 …’의 ‘한’과 같이 같은 말이 이어지면 이해에 여간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예도 (1)에 준하여 쉽표를 두는 방향을 취할 필요가 있다.

- (3) 용례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리어니’는 비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에도 붙는다 (졸고, 〈중세어의 어미 활용에 나타나는 ‘저/어’의 교체에 대하여〉, 《國語學》 9, 1980)

위의 ‘용례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는 절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1)의 예들과 차이가 없다.

북한의 맞춤법에는 쌍반점을 ‘반두점’이라 불러 연결 어미 다음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4) 노동자들의 기술적 자질, ... 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계획성 있게 끌고나갔으며; 직종..., 등을 잘 타산하여 양성반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기능이 높고 낮은 노동자들을 잘 배합하여 개별 전습을 잘 하도록 하였다 (《조선말 규범집》, 1988).

사실 겹문장에서 쌍반점을 사용하는 것은 서양 문법의 영향인데 초기의 김영창, 양 명, 이상춘, 최현배에서도 목격할 수 있고 지금도 외국어 학도들은 즐겨 쓰는 구두점이지만 북한에서도 규범집에서만 보이고 일반 문서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겹문장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겹문장이든 복잡한 겹문장이든 쌍반점은 칠 필요가 없다. 단 한글 맞춤법의 반점 규정 (3)과 같이 다른 단어를 질러서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아니면 쉼표를 쓰지 말아야 한다. 글을 쓸 때 쉼표를 치지 않으면 의미가 더디 파악되거나 중의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만 쉼표를 써야 한다고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

#### 4. 문단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글을 쓸 때,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처음 시작할 때나 문단이 갈라질 때 앞에서 두어 글자를 띄고 있다. 그런데 영미 언어권과 독일어 사용권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케임브리지 언어학 교재의 하나인 크로프트(W. Croft)의 *Typology and Universals* (2nd ed) (2002)의 서문을 보면 첫 문단은 알파벳 10자의 공백을 두고 11자부터 첫 문단이 시작되어 있고 둘째 문단은 4자부터 시작되어 있다. 이를 <방식 A>라 부르기로 한다. 그러는가 하면 콤리(B. Comrie)의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1989)에서는 서문의 첫 문단은 여백을 두지 않았으며 둘째 문단부터 두 글자의 여백을 두고 있다. 이를 〈방식 B〉라 불러 보기로 하자.

독일어 사용권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파울 (H.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1880/1975)에서는 서문의 첫 문단과 둘째 이하의 문단에서 앞의 〈방식 A〉와 비슷하게 모두 4자의 여백을 두고 있다. 심리 언어학자 뵐러 (K. Bühler)의 《언어학의 원자론》 간행 50주년을 맞아 나온 *Karl Bühlers Axiomatik* (1984)는 서문은 물론, 본문 모두 2글자의 여백을 두었다. 한편 판필로프 (F. Panfilov)의 *Philosophische Probleme der Sprachwissenschaft* (독역) (1982)에서는 앞의 B형과 비슷하게 첫 문단은 여백을 두지 않았으며 다음 문단부터 두 글자의 여백을 두고 있다. 최근에 나온 하르베크 (R. Harweg)의 *Studien zur Textlinguistik* (2001)의 서문과 본문의 모든 기고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B형이 표준형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한다.

요컨대 첫 문단과 둘째 이하의 문단을 통일할 것인가, 구별할 것인가로 돌아간다. 그러면 갑오경장 이후 한글이 공용 문자로 등장한 문장에서는 어떻게 분단을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개화기의 대표적인 문장으로 손꼽히는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1906) 〈발문(跋文)〉을 보면 5개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문단이 앞에 여백을 두지 않았으며 유길준의 《大韓文典(대한문전)》(1909)도 서문과 본문이 분단은 되어 있지만 여백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보경(소설가 이광수의 필명)의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1908)는 모두 4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한 글자씩 여백을 두었다. 일제 강점 이후에 나온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에서는 서문은 전혀 분단이 되어 있지 않고 본문은 분단이 될 때마다 한 글자의 여백을 두었다. 그 이후로는 다

소의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첫 문단은 물론, 새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칸씩 여백을 두었으며 이러한 분단법은 광복 후까지 계속되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신문도 위의 관행을 따르고 있지만 어떤 신문은 첫 문단에 여백을 두지 않는 것도 보인다. 북한은 남한과 같이 첫 문단에 여백을 두되 두 글자 정도로 비우고 있다. 중국 조선족과 옛 소련의 고려인들도 대체로 북한의 것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일본도 초창기에는 우리와 같이 문단이 시작될 때나 바뀔 때마다 여백을 두지 않다가 후세에 오면서 여백을 둔 점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 최근에 나온 중국어 논문도 같은 양상을 보여 준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문단이 시작될 때나 새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칸 내지 두 칸을 비우는 현행 관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우리의 국자인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하는 것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이루어진 방식이 아닌가 한다.

자료를 설명할 때 문단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해 보려고 한다. 필자는 1980년대 중반에 동료들과 함께 고등학교 국정 《문법》 교과서를 저술하여 공개 검토를 받은 일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여백을 두지 않았다 (진한 부분 참조).

2의 뒷조각 ‘동화책을 읽었다.’는 다시 다음과 같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다.

3. 동화책을 // 읽었다.

여기에서는 ‘동화책’을 대신하여 ‘만화책’과 같은 다른 말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읽었다’ 대신 ‘보았다’ 등의 다른 말을 바꾸어 넣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의 교정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 칸 여백을 두어 책을 편찬하였다.

2의 뒷조각 ‘동화책을 읽었다.’는 다시 다음과 같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다.

3. 동화책을 // 읽었다.

여기에서는 ‘동화책’을 대신하여 ‘만화책’과 같은 다른 말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읽었다’ 대신 ‘보았다’ 등의 다른 말을 바꾸어 넣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분단법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분단법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어 논문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위의 인용문은 히브리어의 격 표지와 주어-동사 일치의 문제를 다룬 영문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In Hebrew, agreement functions in concert with case marking, in order to uphold the IMP in subject-verb constructions. In Standard Hebrew, verbal agreement may be suspended in VS order. In Example (34a), the verb agrees with its preceding

subject and is marked with the plural suffix +im. In (34b)-adapted from Bar-Adon (1959:398)-verbal agreement is suspended, and the postverbal subject is marked with et:

- (34) a. [otam hadvarim] [mesuparim]  
           same-ple the-things-ple are-told-plm  
       b. [mesupar] [et otam hadvarim]  
           is-told-sgm same-ple the-things-plm  
           ‘The same things are told’.

**In both sentences**, an extra syllable is added to the second of the two major constituents, agreement and case-marking paradigms working in unison to support the **IMP**. (D. Gil, “Case marking, phonological size, and linear order,” *SYNTAX and SEMANTICS* 15, ACADEMIC PRESS, p. 138)

‘In both sentences ...’ 앞에 여백을 두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자료 (34)를 설명하는 같은 문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역시 영문으로 된 예이다.

In conjunction with Table 2, an obvious follow-up would be to propose a universal ranking of inherent markedness, as typically expressed by analogous OT scales:

- (9) Feeding, bleeding > counterbleeding, counterfeeding

In (9) the symbol  $>$  is used in the OT sense of harmony, such that feeding  $>$  counter feeding, for example, implies that feeding relationships, all else being equal. At the same time, the two transparent types of interactions (feeding and bleeding) are co-ranked or tied amongst themselves, as indicated by the fact that they are separated by a comma rather than the  $>$  symbol in (9) ... (S. Parker, "The transparency and density of phonological rule interactions," *Linguistic Typology* 13.2, p. 206)

위의 인용문에서 'In (9) the symbol  $>$  o ...' 앞에 여백을 두지 않은 것은 그것이 (9)를 설명하는, 같은 문단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독일어 논문에서 따 온 것이다.

An einem beliebigen Beispiel können die Zusammenhänge veranschaulicht werden.

- (2) a. als    du mit größ erem Mut aufhörtest  
       b. Comp N P A        N V

In (2b) wurden die lexikalischen Kategorien verzeichnet, die wir annehmen wollen. Eine jede von ihnen wird innerhalb des Satzes auf eine maximale Kategorie projiziert, wobei weitere Elemente einbezogen werden können (Dieter Wunderlich, "Probleme der Wortstruktur,"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Band 5, 1986, S. 211)



‘In (2b) wurden ...’ 앞에 역시 여백을 두지 않은 것은 같은 문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설명을 가하는 일이 많다. 앞의 예시 (34)와 같이 외국 논문에서 취하는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앞의 예시 (9)와 예시 (2)와 같이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가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작업도 쉽고 독자들의 이해도 빠르다는 것을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다. 다음 예를 참고 삼아 제시한다.

넷째, 우리말은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20가)를 다음과 같이 어순을 바꾸어 보기로 한다.

(3가) 재미있는 책을 영수 동생이 열심히 읽는다.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어 놓아도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말에는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띠고 문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사와 어미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2008, 17쪽).

최근 우리나라의 학술 논문에서는 외국어 (주로 영문) 요지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다. 어학 전문 국제 학술지 《형태론》은 창간 취지에 따라 한국어 요지는 논문의 앞에, 외국어 요지는 논문 끝에 붙인다. 《國語學》도 최근에는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문 요지를 보면 논문의 본문과 같이, 앞에 여백을 두며 심지어는 분단까지 하는 일을 볼 수 있다. 외국 학술지는 앞에 여백을

두지 않으며 분단을 하지 않는다. 분단의 필요성이 없으니 여백을 안  
둘 것은 당연하다.

## 5. 본문의 논저 표기와 참고 논저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참고 논저를 배열할 때, 한글 전용이든 국한문 혼용이든 한  
국인,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과 같이 구분하여 한국인은 가나다 순서  
로, 일본인과 중국인은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며  
서양인은 ABC 순서로 배열한다. 이 제제에 참고 논저의 배열 기준에  
대한 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에는 모든 인용 대상의 성명과 논저를 현지음에 따라 ‘파울  
(1880), 소쉬르 (1916)’와 같이 한글로 적는다. 그리고 참고 논저에서는  
모두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되 다음과 같이 괄호 안에 원명을 적고 논저  
명을 적는다.

(1) 가. 카탐바 (1993)과 같은 이형태의 세분은 하스펠매스  
(2002:26-29, 30)에서도 접할 수 있다.

나. 카탐바 (F. Katamba) (1993), *Morphology*, London:The  
Macmillan Press LTD.

하스펠매스 (M. Haspelmath) (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Arnold.

(1가)는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각주이고 (1나)는 (1가)에서 나온 내각  
주의 논·저자의 원명과 서지 사항을 참고 논저에 배열한 것이다. 이렇

게 한글로 원명을 전사하여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면 나중에 참고 논저를 기계적으로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학술지는 어학 전문 국제 학술지 《형태론》이다. 앞으로 이 방식이 보급되어 국적 있는 학문의 전통이 쌓여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개인용 문서 작성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국한문 혼용을 하는 일이 많았다. 원명과 원 논저명을 원문대로 밝혀 놓지 않으면 식별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필·저자가 국한문 혼용을 하였으면 그대로 적어야지 한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성명은 일단 한글로 적되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논저명도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적어야 확인이 쉽다. 그래야만 식별에 혼동을 피할 수 있다.

(2) 김민수(金敏洙)(1986), 《周時經研究》, 탑출판사.

이 자리에서 추가해 둘 것은 (1가)와 같이 성명 다음에 논저의 연대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카탐바(1993)’와 같이 ‘카탐바’와 ‘(1993)’ 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는다. 서양에서 나오는 모든 논저에는 ‘카탐바(1993)’와 같이 한 칸 뜬다. 이웃 일본책을 보아도 모두 한 칸 공간을 두고 있다. 괄호가 독립된 단어의 자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칸 띄어 써야 한다. 이 문제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정민 교수가 극구 강조하여 국제적 관례와 관련시켜 수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영근 1990:200)’과 같이 연대 다음에 인용 쪽수를 달 때 쌍점 다음에 바로 인용 숫자를 적어 넣으나 ‘(고영근 1990: 200)’과 같이 한 칸 띄는 것이 좋다. 현재는 대부분의 논저가 공간을 두지 않는다.

## 6. 마무리

앞에서 필자는 문서 작성에 필요한 문장 부호 및 관련 각주 배치와 문단 잡기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거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문장 부호는 구두 언어의 휴지 등과 같이 자족성을 갖춘 어엿한 언어 실체이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란 뜻이다. 우리 민족어와 같이 어미가 발달해 있는 언어는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 파악에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문자 언어의 중요성이 구두 언어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문장 부호와 문단 잡기[分段]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문서를 작성할 때, 문장 부호의 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그 사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텍스트 유형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앞에서 필자는 신문 기사의 문장 부호 사용법을 잠깐 인용한 일이 있는데 신문 기사는 그대로 독자적인 텍스트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문장 부호 사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문장 부호를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만 제시해 놓고 텍스트 유형에 따라 세부 규정을 만들어 쓰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연결 어미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쉼표를 치지 않는다”와 같이 규정해 놓고 앞의 3의 (1')와 같이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그러하다.

### [고마운 말씀]

이 글의 초고를 읽고 도움 말씀을 주신 정경재 님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이수)과 최윤지 님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